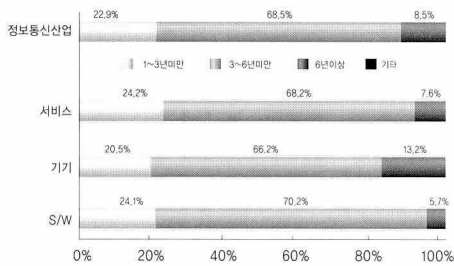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정보시스템(IS)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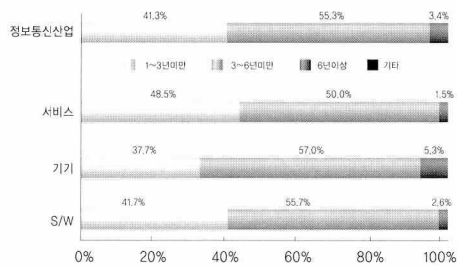
정보화 전략계획(IPS)보유도 62%, 중소기업 여건 미비여전

협회 조사연구팀은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정보통신기기업체,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체 등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주요 718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7일간 '국내 정보통신산업(IT)의 「정보시스템(IS)」 도입 현황'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허용오차 5%)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국내 IT 기업의 H/W의 평균 수명은 3년에서 6년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T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H/W 장비의 평균수명은 3년~6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면에서는 서버종류(Main Frame 등)가 68.5%, 소형컴퓨터(PC 등)는 55.3%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형컴퓨터가 서버종류보다 교체시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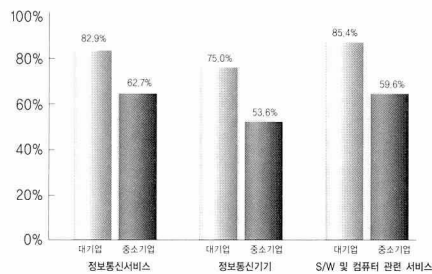


〈표1〉 서버종류 평균수명



〈표2〉 소형컴퓨터(PC등) 평균수명

▶ 기업이 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한 첫 단초인 정보화전략계획(ISP)¹⁾의 보유도는 62.0%로, 이중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대기업(82.9%), 중소기업(62.7%)순으로, 정보통신기기는 대기업(75.0%), 중소기업(53.6%),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에서도 대기업(85.4%), 중소기업(59.6%) 순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은 정보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정보화를 위한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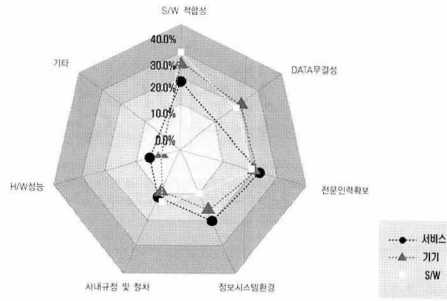


〈표3〉 분야·기업규모별 정보화 전략 계획(IPS) 보유 현황

1) 정보화전략계획(ISP)이란 기업의 사업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 전반의 중장기적인 정보화 계획을 말한다. 다시말해 기업의 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한 첫 단계가 바로 ISP라고 할 수 있다.



〈표4〉정보시스템(S)의 성공적인 도입·운용을 위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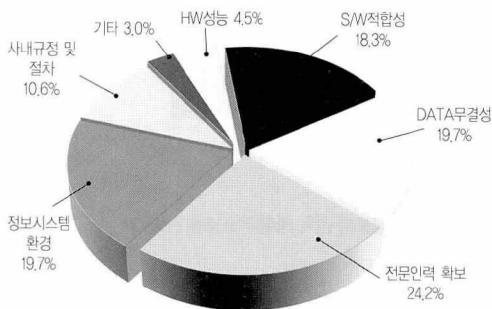
〈표5〉IS 구성요소의 중요도(부문별)

▶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중, 정보시스템(IS)을 성공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시스템관련 정책 및 절차(23.6%), 정보시스템 전담부서 지정(10.1%), 정부의 정보시스템 중요성 홍보(4.5%), 기타(3.1%)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명확한 사업전략과 정보화전략 수립, 담당자들의 중요성 인식 및 활용도 숙지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표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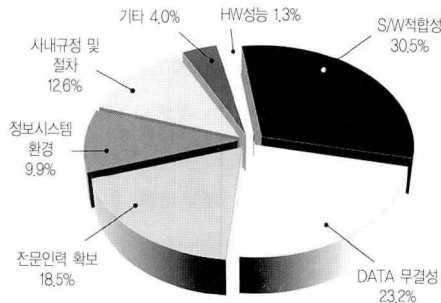
한편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이 최고경영자(CEO)의 의지(67.4%), 정보시스템관련 정책 및 절차(18.6%), 기타(7.8%), 정보시스템 전담부서 지정(3.9%), 정부의 정보시스템 중요성 홍보(2.3%)순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55.0%), 정보시스템관련 정책 및 절차(25.6%), 정보시스템 전담부서 지정(12.7%), 정부의 정보시스템 중요성 홍보(5.4%), 기타(1.3%) 등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보시스템(IS)의 구성요소는 DATA, H/W, S/W, 규정 및 절차, IT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S/W의 적합성이 25.8%(대기업-29.5%, 중소기업-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ATA의 무결성(20.9%, 대기업-24.8%, 중소기업-19.3%), IT전문인력 확보(20.0%, 대기업-13.9%, 중소기업-22.4%), 정보시스템 환경(14.4%, 대기업-9.3%, 중소기업-16.5%), 정보시스템 관련 사내규정 및 절차(12.4%, 대기업-13.9%, 중소기업-11.7%), 기타(4.0%, 대기업-7.8%, 중소기업-2.5%), H/W 성능(2.5%, 대기업-0.8%, 중소기업-3.2%)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IT전문인력 확보(24.2%)가 가장 높으며, 정보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에서는 S/W의 적합성이 각각 30.5%, 25.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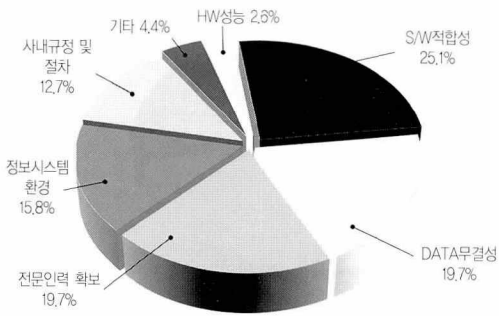
【표5, 6, 그림5-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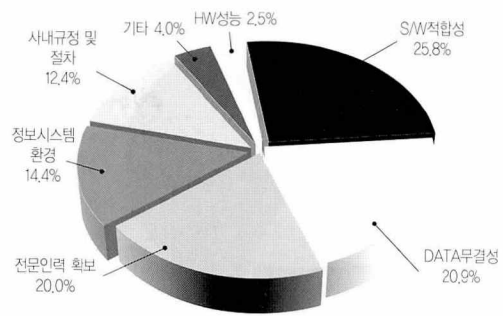
〈그림 5-1〉 정보통신서비스



〈그림 5-2〉 정보통신기기



〈그림 5-3〉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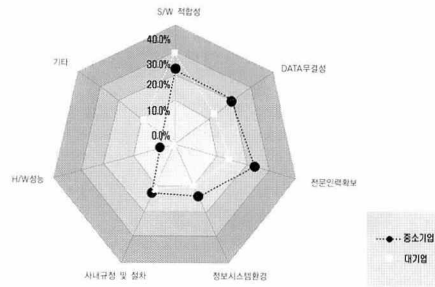


〈그림 5-4〉 정보통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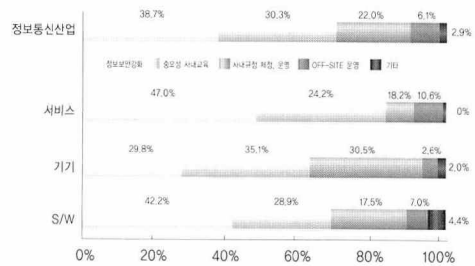
▶ 정보시스템(IS)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DAT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결성으로, 무결성이란 데이터(DATA)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사결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각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으로는 정보보안 강화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중요성 사내교육(30.3%), 강력한 사내규정 제정 및 운영(22.0%), OFF-SITE(원거리 저장장소) 운영(6.1%), 기타(2.9%)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와 S/W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부문에서는 정보보안 강화(서비스 - 47.0%, S/W - 42.2%)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부문에서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중요성 사내교육(35.1%)이 주요정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사항으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사내직원들의 능력 강화, 실무 프로세서 보완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정보보안 강화(32.6%),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 사내교육(31.0%), 강력한 사내규정 제정 및 운영(27.9%), OFF-SITE 운영(5.4%), 기타(3.1%)순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정보보안 강화(41.2%), 데이터 무결성의 중요성 사내교육(30.1%), 강력한 사내규정 제정 및 운영(19.6%), OFF-SITE 운영(6.3%),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표7, 그림7-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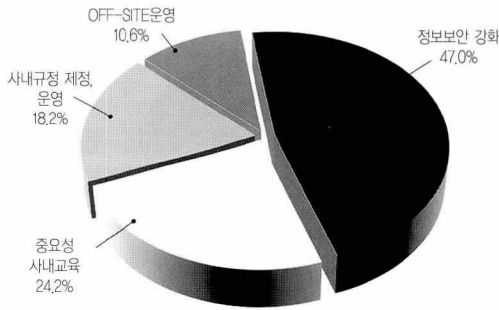
〈표 6〉 IS 구성요소의 중요도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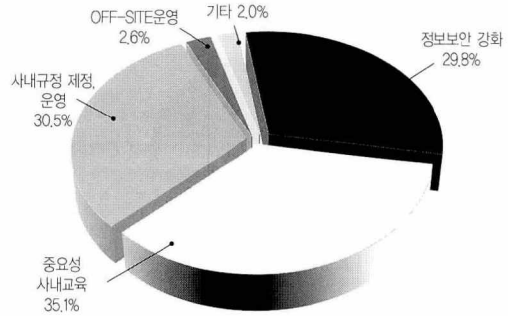
〈표7〉 분야별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주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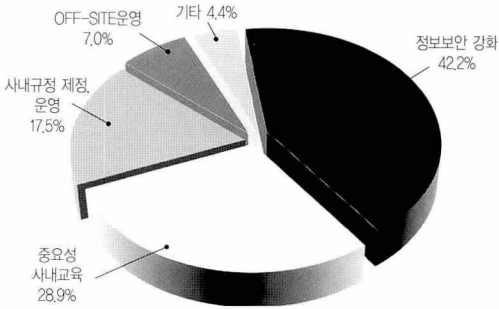
〈표7-1〉 기업규모별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주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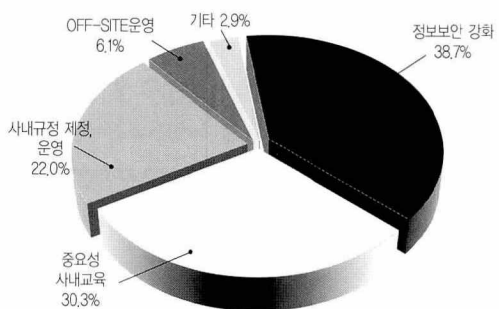
〈그림 7-1〉 정보통신서비스



〈그림 7-2〉 정보통신기기



〈그림 7-3〉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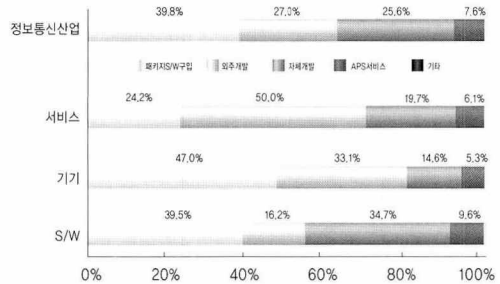


〈그림 7-4〉 정보통신산업

▶ 정보시스템(IS)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S/W(Application) 도입형태를 살펴보면, 패키지S/W 구입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주개발(SI 등)(27.0%), 자체개발(25.6%), ASP 서비스(7.6%)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자사의 성격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외주개발(SI 등)이 50.0%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패키지 S/W 구입과 외주개발(SI 등)이 각각 47.0%, 33.1%를 차지하고 있다.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패키지S/W 구입이 39.5%, 자체개발 34.7%로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 부문과는 달리 업체 특성상 자체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은 외주개발(34.9%), 패키지S/W 구입(28.7%), 자체개발(27.1%), ASP서비스(9.3%)로, 중소기업은 패키지S/W구입(44.3%), 자체개발(25.0%), 외주개발(23.7%), ASP서비스(7.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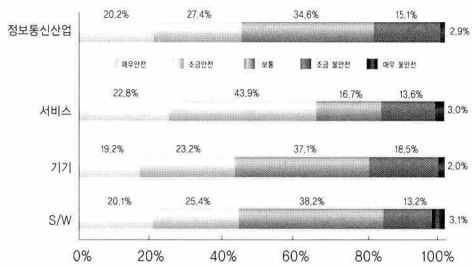
【표8, 8-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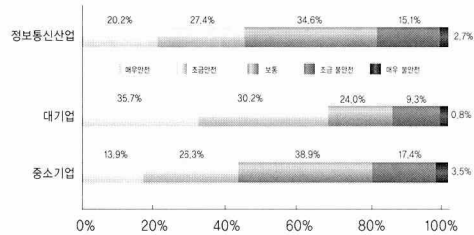
〈표8〉 분야별 S/W(Application) 도입형태



〈표8-1〉 기업규모별 S/W(Application) 도입형태



〈표9〉 분야별 정보시스템 안전도



〈표9-1〉 기업규모별 정보시스템 안전도

▶ 정보통신산업 관련업체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재난재해, 테러공격, 해킹 등 외부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자체평가에서는 안전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금 안전(27.4%), 매우 안전(20.2%), 조금 불안전(15.1%), 매우 불안전(2.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조금 안전(43.9%), 매우 안전(22.8%) 순으로 전체적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보통(37.1%), 조금 안전(23.2%),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보통(38.2%), 조금 안전(25.4%) 순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정보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므로 모든 시스템(방화벽·기술력·보호시스템) 구축완료, 전문부서·전문인력 보유, 보안시스템 수시 Update 등에 의해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조금 안전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방화벽 및 백신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의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안전하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인력부족, 자금확보의 어려움, 방어체계 미약, 보안의식 부족 등을 제기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전도가 매우 안전(35.7%), 조금 안전(30.2%), 보통(24.0%), 조금 불안전(9.3%), 매우 불안전(0.8%) 순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보통(38.9%), 조금 안전(26.3%), 조금 불안전(17.4%), 매우 안전(13.9%), 매우 불안전(3.5%) 순으로 나타났다. 【표9, 9-1참조】

협회동정

협회 ASP컨소시엄, Int'l ASP/IDC Fair 전시회 개최 예정

협회 ASP컨소시엄 사무국은 국내외 ASP/IDC관련업체를 대상으로 'Int'l ASP/IDC Fair 전시회'를 오는 10월 16, 17일 양일간 롯데호텔(소공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 ASP산업 컨소시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ASP/IDC업체 및 관련기관 등과 국내 ASP/IDC관련기업, 전통기업 관련 단체, 유저기업 등이 참여하여 자사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활용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시회와 같이 열리게 될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ASP/IDC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는 7월 31일까지 협회 '한국ASP산업컨소시엄 사무국' (전화 02-580-0661~3/Fax, 02-3486-8988 담당자:손지영/E-mail: liebejy@kait.or.kr)으로 하면 된다.